

남녀 근로자의 복부비만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비정상 간기능 및 생활습관비교

Comparison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bnormal Liver Function, and Living Habits according to Abdominal Obesity in Male and Female Workers

박하늬¹⁾, 이여진²⁾

¹⁾가천대 남동길병원, ²⁾가천대학교 간호학과

목적: 본 연구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복부비만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간기능과의 관련성, 그리고 생활습관의 연관성을 성별에 따라 그 차이를 규명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에 반영하고자 시도 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인천시내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인천시내 모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근로자 1,078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키,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혈액검사(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간기능 효소 수치),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 공통문진표(음주, 흡연, 운동)를 사용하여 생활습관 측정을 하였고, 각 항목특성별 차이는 t-test, 카이제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 비정상군은 남성이 20.9%(161명), 여성은 13.7%(42명), 대사성증후군으로 판정받은 남성은 22.2%(171명), 여성은 5.2%(16명)이었다. 대사성 증후군 구성요소와 결합된 위험군 I의 유병율은 남성이 61.9%(478명)이었고 여성이 56.9%(174명)이었다. 복부비만에 따른 대사성증후군 구성요소는 남성은 혈압상승($\chi^2=20.14, p<.001$), 혈당상승($\chi^2=14.85, p<.001$), 고중성지방혈증($\chi^2=50.26, p<.001$), 저HDL 콜레스테롤혈증($\chi^2=13.60, p<.001$)이 차이가 있었고 여성은 저HDL 콜레스테롤혈증($\chi^2=5.55, p=.018$)에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차이가 없었다. 복부비만에 따른 간기능 유병율은 남($\chi^2=72.13, p<.001$), 여($\chi^2=11.31, p<.001$)모두 차이가 있었고, 복부에 따른 생활습관은 남성은 음주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chi^2=-2.10, p=.036$), 여성은 없었다.

결론: 본 연구를 근거로 남녀 복부비만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와 비정상 간기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두 일상생활에서 조절이 가능하므로 남성은 혈압상승과 혈당상승, 고중성 지방혈증 관리와 음주관리중심으로, 남녀모두 저HDL콜레스테롤 혈증과 비정상간기능 관리에 초점을 두어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한다.

1) 교신저자: 이여진, yiyi@gachon.ac.kr